



위덕대 여자축구단 연습 현장

# 여성 키퍼 '미아햄' 을 꿈꾼다

12월 15일 창단  
목표는 3강



위덕대 여자축구팀 감독을 맡은 안경호 감독(오른쪽 두 번째)이 내년 연맹전 3강을 목표로 선수들과 함께 질주하고 있다.

"아! 그렇게 멍하니 서서 받는 게 아냐. 달려 나오면서 점프를 해야지." 박경숙(28) 코치의 지시대로 지그재그 달리던 선수들이 팔짝팔짝 뛰어오르며 머리로 공을 받았다.

나연이가 공을 높이 올렸다. "선미야, 여기!"

선미가 가볍게 공을 받아 넘기자 나연이는 "아프지 않냐?"며 빙긋이 웃었다.

이들을 만난 것은 12월 초순, 칠포해변의 갯바람이 매서운 포항 흥해읍의 한 인조잔디구장에서였다. 12월 15일 창단을 앞두고 있는 진각중 종립 위덕대(총장 한재숙) 여자축구팀의 붉은색 트레이닝복 상의 위로 'UIDUK Univ'라는 대학마크가 선명하다.

"예, 발 앞꿈치를 들어? 그냥 쪽 뺨으란 말이야." 선수들의 몸놀림이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공은 골대 안보다 옆으로 새나가는 경우가 더 흔했다. 초롱이가 다시 한번 힘껏 공을 걷어 올렸다. 공은 골문을 지키던 현수의 가슴께로 정확히 적중했다. "그렇지." 감독의 짧은 한마디에 초롱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8명의 선수를 이끌고 있는 안경호 감독이 신생 위덕대의 감독을 맡게 된 데에는 대학축의 전폭적인 후원약속이 크게 작용했다. 더구나 자신이 불교집안에서 성장한 불자라는 점도 꼽았다.

위덕대는 내년 상반기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인조 잔디 구장을 교내에 만든

영진전문대에서 편입한 김정아(21·중앙공학석)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오른쪽 정강이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면서도 운동을 계속해 국가 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접지 않고 있다. 정아는 "수술 후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할까봐 두려웠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며 스스로를 대견해 했다.

충주 예성여고를 졸업하는 이미혜(19·수비수)는 팀의 기대주다. 나이는 어리지만 고교급 선수 가운데 최고 실력이라는 평이다. 불자인 흥명보와 김두현을 좋아 한다는 그녀의 목표도 국가대표다.

왜 이렇게 힘든 운동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요즘 세대답게 "그냥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라서"라는 당연한 대답이 돌아왔다. 위덕대가 불교대학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미애는 "불교는 아직 잘 몰라요. 절이든 어디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즐겁게 운동하고 싶어요"라며 대학생활에 기대를 내비쳤다.

훈련의 마지막 코스인 '패시게임'이 시작됐다. 선수들은 반씩 팀을 나누고 각자 상대팀에 공을 뺏기지 않으려 사력을 다했다. 좀더 적극적으로 뛰려는 감독의 독촉이 계속됐다. 훈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가쁠 지경이었다. 그러나 안 감독은 실 새 없이 선수들을 다그쳤다.

"이 훈련의 목적이 뭘지 몰라? 실전에서 상대의 수비를 제치고 순식간에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멍하니 있는 놈들은 뭐야! 움직여 더 빨리, 더 빨리!" 전 후반 15분씩을 뛰는 선수들은 벌써 땀에 젖은 모습이었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매서운 겨울바람이 무색했다. 이들에게 축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수행과도 같다.

아직은 수준은 소녀의 모습이 더 많이 남은 이들이 영화 '슈팅 라이크 벡햄(Bend it like Beckham)'의 주인공을 꿈꾸며 '내일'을 향해 강수를 날리고 있다.

포항=조용수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 여자축구팀 학교 전폭 지원...김홍국씨 홍보위원

위덕대 축구팀은 올해 경희대 여자축구팀이 해체되면서 국내 유일의 4년제 대학 여자축구팀이 됐다. 불교계에서는 정규팀은 아니지만 마산의 천태종 삼학사(주지 영재) 여성신도들이 결성한 '삼학여성축구단'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국내 여자축구연맹 소속팀은 위덕대를 포함 8팀 정도. 전남대학 4곳(울산과학, 영진, 여주, 한양여자)과 실업 3팀(대교, IN스틸, 서울시청)이 전부다. 하지만 이곳에도 남자 축구 못지않은 노력과 치열한 경쟁이 숨어 있다.

잠시후 슈팅 연습이 시작했다. "그렇게 허리를 뺏뺏이 세우고 차니깐 공이 뜨잖아. 공을 골까지 쳐다봐." 안 감독이 초롱이에게 소리쳤다.

다. 불자 가수 김홍국 씨도 기꺼이 팀의 홍보위원을 맡아주기로 했다. 안 감독은 "내년 목표는 3강"이라고 밝혔다.

위덕대 축구팀 식구는 지영이 미진이 정아 은숙이 민틀레 수진이 초롱이 나현이 미혜 은중이 우영이 현수 유진이 성미 선미 지영이 나영이 그리고 박경숙 코치까지 18명. 이들 가운데 지영이(영진)와 미진(여주) 정아(영진)를 빼면 모두 고3 졸업반이다.

이들이 생활하는 숙소는 학교측이 마련해준 인근의 아파트였다.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며 마치 대중방 생활하듯 앞으로 4년간을 지낼 공간이다. 숙소에는 여느 청소년들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들의 대형 사진들로 도배되어 있다. 책상에는 몇 권의 책과 진각중의 성전인 <진각교전>이 가지런히 꽂혀 있다.

이들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까지 다양한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아직 종교를 생각할 만한 여유는 없다. 대학 측도 이에 대한 특별한 요구를 양는다고 했다. 이들에게는 단지 축구가 그대로 자신들의 종교다.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주) 행복만선 Tel. 02)730-0705

###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 소림사, 용문석굴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686 CZ3962	12시 인천 공항 출발/대련 도착 송산사 순례 및 대련 관광/정주로 이동
2일	전용버스	개봉-용정, 철탑, 포공사 관광
3일	전용버스	소림사, 탐림, 백마사 순례
4일	CZ3961	중국의 3대석굴인 용문석굴 순례 대련으로 이동/러시아 거리 관광
5일	CZ685	08시 30분 대련 출발/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삼보에 귀의 하얏고  
당시는 중국 현지 직영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로서  
불자님을 위한 중국여행을  
안내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합니다.

### 중국의 6대조를 모신 광주 남화선사 순례 5일

여행경비: ₩ 740,000원 / 10명이상 출발

일자	교통	일정
1일	CZ338	14시 30분 인천 출발/광주 휴식
2일	전용버스	소관으로 이동-남화선사, 용문사 순례
3일	전용버스	서초산으로 이동-남해관음, 사방죽원, 문화원 순례
4일	전용버스	심천-소인국 민속촌 관광
5일	CZ337	09시 30분 광주출발 / 인천 도착

현지 가이드 및 기사 팀 개인 경비 외 다 포함

### 오와유람선으로 여행 및 순례(매주 약요일 출발)

1. 천진, 북경 7일 (와불사, 담계사, 웅왕궁)  
₩ 390,000원
2. 천진, 북경, 낙양 7일 (소림사, 백마사, 용문석굴)  
₩ 520,000원
3. 청도 태산 곡부 6일 (천불동, 영암사, 잠신사)  
목요일 출발 ₩ 420,000원

•조건: 10명 이상 출발 가능, 비자비 가이드 기사 팀 불포함

호화 유람선 선상에서 수록제 및 소원성취 방생 대법회 가능 (진행 및 인원 상담)